

일본의 아파트와 맨션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로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여행이면 더 좋고 업무를 위한 출장이라도 왠지 비행기를 탄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는 비행시간도 짧아서 적당히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낄 때쯤 도착하기 때문에 이코노믹 클래스 증후군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공항이든 마찬가지로 공항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것이 아니라 외곽에 있어 공항 리무진 버스나 도심 철도를 이용해서 다시 목적지로 이동하게 된다. 일본의 공항에서 목적지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일본의 시골 마을들을 보고 있으면 한적한 평야와 적당한 촌락이 보여 우리의 지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심지어 기와지붕의 집들도 보여 매우 친근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도심으로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이질감이 들기 시작한다. 외곽지역은 우리와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도심으로 갈수록 무언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한참을 달려왔으니 분명 도심 한복판은 아니더라도 시골은 아닐 텐데 높은 건물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가 잘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건물이 2층 규모로 아담하게 지어져 있으며, 내 어릴 적 기억 속의 연립주택과 같은 모양의 건물이 즐비하게 서 있는 게 아닌가.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와 보니 빌딩 숲은 또 우리와 같은데 그곳을 조금만 벗어나니 정말 드물게 보이는 아파트 몇 채 외에는 낮은 구조의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3, 4층 건물은 높은 편에 속한다. 일본도 도심은 땅값이 비쌀 텐데 왜 이럴까?

그 이유는 일본의 지진 때문에 오래전부터 축적된 일본의 건축 양식 때문이다. 일본은 지리적 특징 때문에 지진이 매우 자주 일어나서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도 예사롭게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에서는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사용해서 잠시 흔들리더라도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건축 기법이 지금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단단하고 튼튼한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집을 지으면 오히려 지진의 영향으로 붕괴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해야만 한다. 따라서 일본은 내진설계와 관련된 건축 기술이 발달했지만, 내진설계는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지으려 하니 여전히 목조 주택이 많이 있고 목조 주택은 구조상 3층 이상으로 올리기가 어려워 2층 이하의 주택이 많이 보이는 것이다. 목조 건축물은 단독 주택도 있지만 도심으로 갈수록 우리가 아는 연립주택 모양으로 지은 집을 부동산 회사가 관리하면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 우리가 보기에는 연립주택인데 일본에서는 그것을 아파트라고 부른다. 사실 아파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러한 형태는 맨션이라고 한다. 따라서 맨션은 고층 건물에 가격이 비싸 아파트보다는 집값이나 월세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드물게 보이던 아파트를 일본인들은 맨션이라고 부르다니 일본과 우리는 같은 게 많은 줄 알았는데 같은 것도 다르게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본인과 대화할 때 아파트 이야기 나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인지 아니면 맨션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한참 동안 동문서답을 할 수도 있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총선에 뒷전으로 밀린 망사요금



기지 수집
구남영
(산업부)

총선 표심을 노리고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등 각종 감세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망사요금에 대한 논의는 뒷전에 밀리고 있다. 망사요금 갈등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민생과 밀접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종 논의 제외되고 있는 것. 하지만 망사요금은 기업 성장을 좌우하는 중대 요소다.

망 사요금은 넷플릭스, 트위치, 네이버 등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사용료다. 이를 두고 ISP와 CP는 장기간 갈등을 빚어왔다. ISP는

CP가 데이터 트래픽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만큼 망사요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CP는 이용자들이 통신 요금을 내기 때문에 콘텐츠 기업이 망 사요금을 내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망사요금 관련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국회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50여 건의 법안을 상정했지만, 망 사요금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한 건도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트위치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망사요금에 대한 논쟁은 재점화됐다. 트위치가 철수 이유로 한국의 비싼 망 사요금을 꼽았기 때문. 이를 두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트위치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의 망

사요금은 아시아 대부분 국가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트위치의 철수는 망사요금 문제가 아닌 경영실패로 봐야 한다는 것.

하지만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제공 업체인 임원인 최고법률책임자(CLO) 알리사 스타작 또한 최근 유튜브를 통해 한국의 트래직 비용이 세계 다른 지역의 30배 수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트래직 비용은 낮은 티어의 네트워크 정보(트래픽)를 높은 티어의 네트워크로 보낼 때 드는 비용을 말한다.

이처럼 망 사요금에 대한 논쟁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망 사요금은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요소이다. 국가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길 기대해본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9일 (음 2월 10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복권 사는 날. 48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60년생 가족 간의 다툼은 파하는 것이 상책. 72년생 조직에서 선봉에 나서게 되지만 오래 근무하던 사람들의 질투를 받는다. 84년생 독산고목(秃山枯木)으로 지도자의 상.
- 소** 37년생 병도 약도 내 탓이다. 49년생 독신이어도 이성에게 눈길은 조심. 61년생 자손이 상을 받아 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없다. 73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고 과식하지 마라. 85년생 남편에게 잘하면서 무서우도 한다.
- 호랑이** 38년생 가족 간에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기기 서로가 슬프다. 50년생 배우자와 다툼이 예상된다. 62년생 용이 물을 만나니 뜻밖의 바를 달성. 74년생 상대 연인이 상견례를 하려고 할 것이다. 86년생 파부트러블이나 위장병 체크.
- 토끼** 39년생 고향으로 가서 삶을 시작하려. 51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분발해야 한다. 63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하다. 75년생 내일의 복된 날을 위해 오늘은 꾸준히 노력하라. 87년생 어려운 일도 수단이 능하여 해결.
- 용** 40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이다. 52년생 명성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해 보자. 64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말조심. 76년생 주변 애경사에 참석하듯 집안의 제사에도 참석하라. 88년생 이재능력(理財能力)이 향상된다.
- 뱀** 41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가까운 곳을 살펴라. 53년생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면서 따르려 하지 않으니. 65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이니 마음을 편하게. 77년생 시간은 금이니 활용을 잘해야 한다. 89년생 남편은 기대 이상.
- 말** 42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 54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은 없는지 생각. 66년생 길 떠나려는데 비가 온다. 78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90년생 청풍명월과 같이 자연을 벗 삼고 싶어 농사 선택.
- 양** 43년생 아랫사람과 협력해야 만사가 편하다. 55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해야 하는 날. 67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하라. 79년생 모난 돌이 정 많은 법이니 오늘을 참아야 한다. 91년생 부모님을 보니 세월이 덧없지만 희망은 있다.
- 원숭이** 44년생 격한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56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68년생 열쇠 세 개를 얻는 날. 80년생 마음이 울적할수록 웃어야 복이 온다. 92년생 서둘러서 답장을 수리하여 운기를 바꾸자.
- 닭** 45년생 부동산은 남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 57년생 힘들어도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69년생 바를 가는 데 실 따라가니 행운이 가득. 81년생 심한 다이어트보다는 덜먹어보라. 93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
- 개** 46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휴식이 필요하다. 58년생 과대포장은 상대에게 부담 주는 일이다. 70년생 상부상조하는 것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니 협동. 82년생 구름이 물을 보니 용을 만나는 날. 94년생 투자에 성공하는 지름길을 찾을 수가 있다.
- 돼지** 47년생 자손이 새 인연을 데려오니 기쁘다. 59년생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현상 유지가 최선. 71년생 나만 뒤쳐지거나 소외된 것 같아서 두려움이 오는 것 같다. 83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리니 일을 마무리한다. 95년생 종교에 관심을 둔다.



김상회의
관상과 운명

사주보다는 관상이요 관상보다는 심상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하는 생각이 표정에 나타나기도 하며 평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에너지가 되어 얼굴에 그 생각대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파악하기도 하는 것이니 얼굴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관상이 오랜 세월을 두고 사람의 됬됨이와 운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관상학으로까지 발전했는데 현대 심리학에서도 행동심리학이란 분야가 있다. 사람의 심리적 상황에 따라 일정 패턴으로 걸음걸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눈빛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은 이미 모두가 인정하는 기본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삼당을 위해 들어서는 사람의 표정이나 눈길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엇이 궁금해서 왔는지 점점을 쳐보면 틀리지 않았다. 가끔 불륜 남녀가 함께 오기도 하는데, 필자는 불편하지 않게 대하여도 처음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워한다. 동업자끼리 와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숨기는 것이 있거나 할 때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딴 곳을 보며 이야기하거나 눈을 깜짝거리기도 한다. 말을 할 때 입술에 침을 바를 때는 거짓말을 감추고 싶은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습관이라고 관상학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손과 발로 탄짓을 하거나 다리를 떠는 것도 복 나가게 하는 짓이라고 어른들이 야단을 치는 것도 뭔가 자신이 없고 불안할 때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주눅이 들고 매사 자신이 없으면 내면에 불안함이 있을 때도 시선이 바르지 못하다.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라도 시선을 바로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마음에 자꾸 자신을 주는 구절을 반복해보는 것도 좋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관세음보살'이라고 보살님의 명호를 작은 소리를 내어 염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풀이:

	8	9	3	1
4		3	9	
			2	7
	7		2 6	8
2		8 5		1
6		7		
	5	8		6
9	2	4	1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1	9	7	9	2	8	6
9	6	7	8	8	2	9	1	2
9	8	2	6	1	2	8	7	9
6	1	2	7	9	8	9	8	2
7	2	9	1	2	8	6	9	8
8	8	9	9	2	6	7	2	1
2	7	8	2	9	1	6	8	9
2	9	6	8	8	1	2	9	7
1	9	8	2	6	7	8	2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9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9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